

2011년 11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2,492조회)

몸이 아프던 시기
体が悪かった時期

몸이 아프던 시기에 문득
体が悪かった時期に突然

글이 써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文字がかけなかった経験がある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나 하는
これからは違う職業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위기감도 느꼈다. 모든 사고 작용이 멎고,
危機感も感じた。総ての思考作用がとまって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모든 언어를 잃어버린 듯한
総ての感覚が麻痺して、総ての言語をわすれてしまったような

그 정지의 상태는 몸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과
その停止の状態は、体の健康がよくなることと

비례해서 천천히 회복되었다. 건강이 회복되고
比例して少しずつ回復した。健康が回復して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문체는
もう一度文章を書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き'文体は

곧 육체다'라는 저 유명한 명제를
まさに肉体だというその有名な命題を

온몸으로 이해할 것 같았다.
全身で理解するようだった

- 김형경의《사람 풍경》중에서 -
- キム・ヒョンギョン<人の風景>より -

* 몸이 아프던 시기.
* 体が悪かった時期。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誰にでもある苦痛の時間です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어느 날은
総てのことが面倒でつらくなります。ある日は

글쓰기 커녕 숨을 쉬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文字かきどころか、息を吸うことさえ難しいです

그러나 동시에, 평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しかし同時に、普段の健康管理がどれだけ重要なのか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私の健康をきちんとしてくれる人が、どれだけありがたいのかを

깊이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지
深く悟る時期でもあります。体が悪く

않아야 글도 잘 써집니다. 문체의 건강도
なくてこそ、文章もちゃんとかけます。文体の健康も

육체의 건강에서 옵니다.
肉体の健康から来ます

문득

1. [부사] 突然起こるさま:ふと; はっと; ひょいと。

멈다

1. [자동사] 止む。

2. [자동사] 止まる。

정지 [停止]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停止; 途中で止まること; 途中でやめること。

비:례 [比例]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比例。

2. [명사·하다형 자동사] 例を挙げて比べること。

귀-찮다

1. [형용사] 귀치 아니하다の縮約形:厄介だ; 面倒だ; わずらわしい。

문체 [文體]

1. [명사] 文体。

2. [명사] 文章の様式(文語体・口語体など)。

2011년 11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3,758조회)

말이 예쁜 아이
言葉がきれいな子供

아이에게
子供に

좋은 옷을 입히고,
いい服を着せて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いい食べ物を食べさせることは

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金さえあれば、だれでもできることです

그것이 아이의 걸모습을 빛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それが、子供の見かけを輝くようにするかはわかりません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우리말을 쓰도록 도와주는
しかし、子供にいいお国の言葉をつかうようにてつだってあげる

것은 돈 없이도 우리 아이를 빛나게 하는
のは、お金がなくてもわが子を輝くようにする

훌륭한 자녀교육의 한 방법이
立派な子供教育のひとつの方法では

아닌가 합니다.
ないかと思えます。

- 공규택의《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중에서 -
- コン・ギュテクの〈言葉がきれいな子供言葉が荒い子供〉より -

* 옷으로, 걸모습으로
* 服で、見かけで

아이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子供をかわいく仕立てることが多くなりました

반면에 말을 예쁘게 하는 교육이나 훈련은 갈수록
反面、言葉をきれいにする教育や、訓練は、行くほど

힘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혼입니다.
力を失っていくようです。言葉はその人の魂です

그 혼에서 생각이,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その魂から思いが、その思いから言葉が出ます

그 말이 그의 삶이 되고 꿈이 됩니다.
その言葉が、彼の人生になって、夢になります

말이 예쁜 아이는 그의 인생,
言葉がきれいな子供は、その人生

그의 미래도 예쁩니다.
その未来もきれいです

시 [姿]

1. 모습. 겉모습.

빛-나다

1. [자동사] 光る; 映える。

2. [자동사] つやつやする; 光る; 輝く。

자녀 [子女]

1. [명사] 子女; 息子と娘; 子ども。

거칠다

1. [형용사] 粒が粗い。

2. [형용사] まばらで粗い。

꾸미다

1. [타동사] 作る; 作りあげる; 構える; 仕立てる。

2. [타동사] 企てる; たくらむ; 謀る。

2011년 11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249조회)

대화
対話

의미가 있는 대화도 좋고,
意味がある対話もよい

의미가 없는 대화도 좋고,
意味がない対話もいい

심도 있고 깊은 대화도 좋고,
心があって、深い対話もよい

아무 생각없이 하는 대화도 좋고,
あまり考えない対話もよい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대화도 좋고,
長いあいだ座って話す対話もよい

잠깐 스쳐가듯 지나가는 대화도 좋고,
ちょっと触れるような、過ぎ去る対話もよい

다른 사람과 하는 대화도 좋고,
他人とする会話もよい

가끔은 혼자 자신과 하는 대화도 좋다.
たまには一人自分とする対話もよい

- 지상철의《특별하지 않은 너를 위해》중에서 -
- チ・サンチョル<特別じゃない君のために>より -

* 대화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 対話が不足した時代です

대화할 겨를조차 없이 혼자 달리듯 삽니다.
対話する暇さえなく、一人走るように生きます

그러니 갈수록 틈이 생기고 간격이 커집니다.
だからますます、暇が生じて間隔が大きくなります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다.
対話の始まりは、相手方にあるのではない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귀를 열어야
私が、まず言葉をかけて、耳を開いて

온전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正常な対話が始まります

대화도 기술입니다.
対話も技術です

스치다

1. [자동사] すれすれに通ら過ぎる; かする; 触れる; 擦れる。
2. [자동사] かすめる; よぎる。

겨를

1. [명사] 暇; 余暇; 余裕。

틈

1. [명사] すき間; 割れ目; 裂け目; 間隔; 亀裂。

2. [명사] 暇; 手間; 間; 余暇。

간격 [間隔]

1. [명사] 距離; 間隔; へだたり; 間。

2. [명사] 間隔; 間; ギャップ。

시작 [始作]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始めること; 始め; 開始。

2. [명사·하다형 자동사] 源が発すること。

온전 正常

2011년 11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2,276조회)

인재 육성
人材育成

순조롭게
順調に

돌아가는 회사에서는
回っている会社は

오히려 인재 육성이 어렵다.
むしろ人材育成が難しい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라면
現在困難に対処している会社なら

그것을 기회로 효과적인 인재 육성을 실행해 보자.
それを機会に効果的人材育成を実行してみよう

사원들은 어려움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
社員たちは困難の中でさらに成長できる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경영의 마음가짐》중에서 -
- 松下幸之助の<経営の心構え>より -

* 온실의 화초는 약합니다.
* 温室の草花は弱いです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ちょっと、強い風が吹いても力をつくすことができません

인재 역시 온실에서 자라기 어렵습니다.
人材も、まさに温室で育ちにくいです

거친 들녘에서 모진 삭풍을 견디면서
粗い平原でひどい北風に耐えながら

발굴되고 육성됩니다. 한 개인이든
発掘され、育成されます。一個人でも

조직이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組織でも困難に対処したときが

인재 육성의 최고 기회입니다.
人材育成の最高の機会です

순조롭다 [順調-]

1. [형용사+불규칙활용] 順調だ。

돌아가다

1. [자동사] 回転する; 回る。

2. [자동사] 帰る; 返る; 還る; 戻る。

마음-가짐

1. [명사] 心構え。

2. [명사] 決心。

화초 [花草]

1. [명사] 花の咲く草や観賞用の植物; 草花。
2. [명사] 接頭語的に用いて, 「飾り物」や「遊び道具」の意。
들; -널
1. [명사] 野原のある所; 平野地帯; 野良。
거칠다
1. [형용사] 粒が粗い。
2. [형용사] まばらで粗い。
- 삭풍 [朔風]
1. [명사] 朔風; 北風。
모; 질다
1. [형용사] むごい; ひどい; 非情だ。
2. [형용사] 粘り強い; 根気づよい; よく耐える; 我慢強い。

2011년 11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3,470조회)

“개그 아이템 150개 있습니다”
“ギャグアイテム150個あります”

“이런 아이템 몇 개나 있어요?”
“そんなアイテムいくつくらいありますか?”

“150개 있습니다.”
“150個あります”

“에이, 거짓말 말고.”
“え？うそつかずに・・・”

“여기 다 적어놨는데요?”
“ここに全部書いてたの?”

나는 감독님에게 1번부터 150번까지
私は、監督に1番から150番まで

번호가 매겨진, 개그 아이템을 빼곡하게
番号がつけられたギャグアイテムをぎっしりと

적어놓은 아이디어 노트를
書いておいたアイデアノートを

건넵니다.
渡しました

- 김병만의《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중에서 -
- キム・ビョンマンの〈夢がある亀はつかれません〉より -

* 150개 아이템이 적힌 아이디어 노트.
* 150個のアイテムが書かれたアイデアノート

개그맨 김병만을 오늘의 '달인'으로 만든 시작점입니다.
芸人キム・ビョンマンを今日の達人'にした出発点です

'시작점'이라 했으나 사실은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出発点'といったが、実はずっと前から、すでに

시작된 것이고, 다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始まったことで、ただ、今'光りだした'という

뜻입니다. 하루 아침에 빛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意味です。一日で光出すことはありません

오랜 시간 외로운 준비와 땀과 눈물이
長い時間つらい準備と汗と涙が

150개 아이템 노트로 고였을 때
150個のアイテムノートでたまったとき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ようやく光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

적다

1. [타동사] 書く; 書きとめる; 記録する。

매기다

1. [타동사] 付ける。

2. [타동사] 付ける; きめる。

배각

1. [부사·하다형 자동사] 배각の強調語: きいっ。[큰말] 배각

지:치다1

腹水がたまる

복수가 고이다

1. [자동사] 疲れる; へとへとになる; くたびれる; 飽き飽きする。

20111126.txt

2011년 11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1,675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전순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ン・スヨ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젊음
若さ

먹고싶을 때 먹을 수 있고
食べたいときに食べることができて

자고싶을 때 잘 수 있으니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寝たいときによく眠れる私はとても幸せだ

그리고 이 행복은 바로 먹고싶을 때 먹지 못하고
そしてこの幸福はまさに食べたいとき食べることができず

자고싶을 때 자지 못했던 젊음에서
寝たいときに寝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若さに

유래된 것이다.
由来することだ

- 이외수의《하악하악》중에서 -
- イ・ウエスの〈はあはあ〉より -

* 저는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입니다.
* 私は一生懸命働いている若者です

지금은 비록 여러가지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지만
いまは、たとえ色々つらくて、疲れることが多いが

분명 행복한 날이 오겠지요? 세상에 모든 젊은이들!
きっと幸せな日が来るでしょう? 世の中の総ての若者たち!

오늘도 힘내서 건강한 하루 만들어 보자구요~♥
今日も頑張って元気な一日にいきましょう~

하악하악 오픈사전
인간 혹은 동물의 거친 숨소리를 나타내는 단어. 만화책 '피안도'에서 자주 등장한다. 난처한 상황,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

비록

1. [부사] たとえ; もしそうであっても。

분명 [分明]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分明; 明らかなこと; 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 明白。